

## 로메르+로메르展

6. 16~7. 31  
마이클스츨갤러리  
글 | 정현 · 미술평론가

로메르+로메르는 공동 작업을 하는 예술가 부부라고 한다. 그들은 회화를 통해 실재를 쫓고,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 여행을 한다. 로메르 부부가 그리는 회화의 주제는 여러 도시의 일상이다. 그 일상들은 특별하지도 낯설지도 않은 보편성을 지닌 그런 사진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사실, 컴퓨터 모니터로 먼저 보게 된 그들의 작품은 사진에 가까웠다. 그러나 막상 실제 작품을 대면하자 사진 같았던 그 이미지가 반대로 회화적이었음에 적응은 충격, 기쁜 충격을 받게 되었다. 로메르+로메르의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듯하다. 하나는 현대미술에서 회화라는 매체에 대한 해석의 패러독스이며, 다른 하나는 회화의 주제인 관광이다. 첫 번째 관점에서 풀어보자면, 벤아민이 예견했던 복제의 시대를 이끌어 낸 사진기술에 대한 부분이다. 사진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어느새 회화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것이 더 이상 놀라운 발견은 아니다. 그럼에도 회화가 여전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의 화면들, 물성 주제 의미(또는 무의미)를 생산하고 있는 것 또한 눈여겨볼 만한 21세기 미술의 현상 중 하나임을 간과할 수

없다. 그들의 회화가 지닌 특징 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사진 기술과의 연관성일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 필름 사진이 회화를 위한 훌륭한 조수였던 반면, 현대의 디지털 사진은 사진 기술의 화학적 프로세스가 제공했던 마법과 같은 환영, 극적이거나 로맨틱한 연출과는 다르게 일상을 기록하는 훌륭한 도구이자 글쓰기를 대신하는 매우 일상적인 이미지-텍스트가 되었다. 로메르+로메르에게 사진 기술이란 근본적으로 세계관의 시각적 틀을 의미한다. 또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기의 방식이나 회화의 물질성, 에너지가 아니라 회화가 실재를 재구성하거나 실재에 관한 물음을 던질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평범한 관광 사진, 낮은 해상도의 사진을 크게 확대할 때 발생하는 갖가지 흔적들, 거대한 픽셀이나 과잉 노출, 빛이 바랜 색감이나 디테일이 사라져버린 거친 실루엣 같은 전자적 불완전함을 회화적 이미지로 끌어들이었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 로메르+로메르의 회화는 단순한 사진의 재현이 아닌 기술의 진화와 사회의 변화가 유도한 미디어화된 현대인의 세계관을 회화라는 전통적인

매체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화라는 결과물 이전에 시각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구조에 있다. 두 번째로, 로메르+로메르는 '관광'이라는 지구적인 여가 활동을 통해 그들의 예술관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그들은 블라디보스토크 마드리드 모로코 게다가 남북한 경계선까지 찾아가면서 다양한 장소를 찍는다. 각각의 그림은 각기 다른 지역을 다루고 있지만, 건조하고 익명적인 이 장소가 그 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모든 작품에 적용된 디지털 사진을 보는 것만 같은 효과의 반복에 있는데, 이는 마치 국가 간의 차이가 상실되어가는 세계화의 원근법을 재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시 그들의 회화를 돌아가 보자, 다양한 문자들, 거리의 일상들, 텅 빈 축구장의 외로움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살아남은 지역의 투박함만으로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상투적인 이미지 앞에서 묘한 애잔함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연민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상실감 때문일까? 프랑스의 미

학자 이브 미쇼는 관광이란 근본적으로 '미학적 경험'과 동일하다고 정의 내린다. 그 이유는 우리가 관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형언하기 힘든 감동, 미적 쾌감이기 때문이다. 현실적 삶에서 벗어나 낯선 곳을 방문하는 관광의 미덕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인데, 이런 감성은 예술을 감상하는 전통적인 미학적 태도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미술이 주목하는 21세기의 관광주의는 단지 이국취향, 후기 식민주의적 풍광을 되찾으려는 향수와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들라크루와의 모로코 여행기 속 크로키들은 19세기 초 유럽인의 오리엔탈리즘으로 충만해 있다. 이처럼 근대의 관광이란 마치 '80일간의 세계일주'처럼 신비와 동경, 이국성을 향한 욕망의 발현이었다. 반면 이브 미쇼의 말을 빌리자면, 현대미술이 주목하는 관광주의란 관광을 통해 인간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는 행위이며,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존재론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다. 결국 로메르+로메르는 회화를 통해 회화적 환경이 아닌, 실재를 찾고자 한다. 실재란 여전히 모호한 존재일 지라도 말이다.



위 · 〈Fuckparade〉  
캔버스에 유채 165×220cm 2008  
아래 왼쪽 · 〈Schlammbad〉  
캔버스에 유채 165×220cm 2008  
오른쪽 · 〈Festivalausklang〉  
캔버스에 유채 165×220cm 2009

